朝鮮日報 夕刊
一日(日)
本紙朝夕刊十二面
◆本社定期刊行物◆ 「朝光」(月刊一回) 「女性」(同上) 「少年」(同上)

별표고무

杭州西部地區敵軍 各部隊猛擊으로潰走
敵千七百의死體遺棄

【上海三十日發同盟】杭州西部地區에서 斷末魔的抵抗을 하고잇든 敵遊擊隊를 掃蕩하고잇든 德淸、松平、洞內、金澤、山田各部隊는 蕪湖方面으로부터 東進하야 이와서로 呼應하야 雨露部隊는 瓶陽鎭方面으로부터 西進하고 또野添部隊는 余抗富陽方面으로부터 北進하야 到處에서 敵部隊를 擊破하면서 二十八日 大槪 其主力을 殲滅하엿다 敵은 第六一師 第一〇八師 第一八九師에 屬하는者로 我軍의猛擊으로 一千七百의 死體를 遺棄하고 潰走하엿다 이에對하야 我方에도 死傷者合하야 百名의 損害가잇섯다

中央軍北上要求 敗戰의責任回避

【蚌埠三十日發同盟】當地에到着한情報에依하면 事變初期에徐州에서 第五戰區總司令으로 指揮하여온 李宗仁은 最近蔣介石에對하야『將來할徐州大會戰을 압두고 屢次의戰鬪에 我軍은戰鬪力이半減되어 現在의兵力으로서는 到底히破竹의勢로 進擊하는日本軍에對抗할수업다 至急援下의手許에잇는 中央軍及 現在津浦線南段戰線에 配備된 廣西軍을北上시켜달라』고數回에亘하야 强硬히要求하엿스나 蔣介石은 蘇縣及鳳台에서 李品仙이指揮하는第十一軍의二個師를 爲始하야安徽河南에 配備한雜軍及奧地에 配置하고 極히 短時日의訓練을施한 粗製軍을 增援케한데그치고 手許의 中央軍은 어대까지던지 增援지안코 또漢口政府部內의 動搖에鑑하야 廣西軍을 李宗仁에게 配屬시킴은 李의向背를 懸念케되므로 말을左右로하야 廣西軍을 北上시킴에 同意치안코 李宗仁어 抗日戰에 自己의運命을 賭하야 最後의關頭에서서 蔣介石의 態度에憤慨하고잇다 그런데 李宗仁은 徐州會戰에際하야 어디까지 蔣이中央軍의 北上을 不肯할境遇에는 斷乎第五區總司令을 辭하고 抗日戰으로부터 脫退할 자못强硬한 態度를 取하고잇는데 蔣介石의 態度如何에 依해서는 即時 漢口撤歸를 決行할 形勢를 示하고잇다 李宗仁이 이러한 態度를 取하게 된것은 이미 勝敗의 歸趨가 明白하고 今後 戰鬪에잇서서 敗戰의 責任을 回避하기爲하야 蔣에 到底히 實行할수 업는 中央軍及廣西軍의 配屬이라는 難題를要求하야 敗戰의責任을 轉嫁시키려하며 眞意는 如何튼 徐州 隴海線에잇는 約四十萬의敵軍은 必死의抗戰을 압으로 말하면서 內面上級武官의不平과 漢口政府의 國共兩黨의相克運動이 敏感하게 反映하야 非常한動搖를 誘起하고잇다

北支서도日本 時間制를採用

【天津三十日發同盟】北寧鐵路其他各特殊會社에서는 日本時間을 採用하고잇스므로 天津日本領事館에서도 五月一日부터 新時間制를採用하기로되엿다

瑞西中立復歸의 覺書要旨

【쥬네브三十日發同盟】聯盟事務局은 三十日正午 瑞西의絕對中立復歸에關하야 二十九日附覺書를 發表한바 其要旨는 左와如하다

一、瑞西政府는 一九二〇年二月十三日 倫敦에잇서서의 聯盟理事會의 言明에依하야 經濟制裁의 義務박게는 負擔하고잇지안흐나 其後에 잇서서의 事態의 變換에 鑑하야 드디여 絕對中立復歸를 要求한다

二、瑞西政府는 中立地位에關係업는問題에對하야는 依然聯盟에 協力을誓約한다

要컨대 瑞西政府의 今回의覺書는 聯盟規約第十六條에 規定한 制裁義務의 一切를 免除하려는 것으로 右覺書는 이미 英佛兩國政府의 諒解를어든것으로 傳하고잇다

國策遂行協力者인 政黨에積極慫慂
近衛內閣의總動員方針

【東京電話同盟】政府는 事變의 長期化에對應하기爲하야 機會잇는대로 國民의協力을求하야 擧國一致時艱克服에 邁進하기를要望하고 事變勃發當初에는 風見書記官長을中心으로 言論界 政黨財界等 各方面에對한 提携協力態度를 示하엿스나 其後政黨에對하여는 時局認識에 異議가잇다는 理由로 表面上은 如何튼 實際로는 排斥的態度를 取하고政黨도 또한消極的이나 政府反對態度를 取하게되엿다 그리고這間에잇서 末次中野兩相과如한有力閣僚가 所謂新黨運動의出動者와가티보는 政民兩黨이漸次消極的으로되엿는데 時局의重大性은 國策에協力할 新政黨의誕生이라는 根本問題는 暫時이를措置할 當面緊切한 諸政策을遂行하야 이것의協力을 求하기爲하야 從來와如한 消極的態度를一擲하고 政民兩黨을 爲始하야 旣成政黨派에對하야 어떠한態度를 取하지안흘수 업게되여 再次旣成政黨에 積極的으로 慫慂하야이를 政府의 政策協力者로서 動員시키기로 되엿다 即先國民精神總動員中央聯盟은改組하야 從來와如한 精神的方面뿐만아니라 消費節約 貯蓄獎勵等의物資的 方面의 總動員運動까지兼行하며 이에伴하야 中央役員地方指導者等을 政黨及民間으로부터求하야 問題마다 隨時全國에 總出政府의 政策을 徹底케하며 國民의 協力을 求할方針을取하기로되엿는데 다시今後各種委員會가 政策具體化를 爲한全國的組織下에 政黨員을 多數參加식혀 政黨及 民間의有力者를動員하야 政府의政策에 實際協力하야 表面擧國一致의力을取하면서 實際로는 政府反對態度를取하며오는 政黨人을 政府圈下에吸收함으로써 政策의徹底化를圖하고 아울러政黨을 政府協力者로되게하려는 一石二鳥의效果를擧할方向으로 轉換하야 今後 政府의政策遂行上 이것이如何한程度의 實績을擧할지 對政黨問題解決의關鍵으로注目된다

皇太子殿下 御參內

【東京電話同盟】皇太子殿下께서는 一日 日曜日午前十時半 赤坂東宮假御所를 御出門 宮城에御參內 天皇 皇后兩陛下께 天機及御機嫌을 奉伺하시고 大奧에서 御團欒하신後 午後三時半 宮城御出門 還啓하시엿다

勤政殿에서 擧行된 招魂祭式場

治安確保에殉職한 英靈招魂祭執行
一日景福宮勤政殿서

明治四十三年八月 慶南道巡査部長 野村賢治氏가 强盜犯人과 格鬪하야 悲壯한 殉職을 遂한後부터 二十有八年 昨二十日 새로合祀된英靈을 加하야 警察官二百九十六柱 消防職員三十五柱의 英靈을慰하는 朝鮮警察協會及 消防協會主催의 招魂祭는 事變下緊張色도 濃厚하게 今一日午前十時로부터 新綠에 무르익은景福宮勤政殿에서 嚴肅且 盛大히 執行되엿다 王公家御使 南總督 小磯軍司令官 大野政務總監以下 總督府高官及 軍部諸將星 各道警察部長 其他 諸名士及 高官夫人 殉職者遺族及 警察消防職員代表等千數百名參拜 祭場의 內外는 一層敬虔하고 森然한가운대 祭典은 市京城神社神職에依하야 進行되여 三橋協會長의 祭文朗讀 大日本消防協會長의 祭詞代讀、遺族總代의祭文朗讀等이잇슨後 王公家御使를爲始하야 南總督、小磯軍司令官以下參列者各代表의 玉串奉奠으로半島治安確保를 爲하야 職에殉한 英靈三百三十一柱의魂 이에永遠히 平安케하는 招魂의盛儀는 同十一時無事히終了하엿다

警察部長會議
今二日부터開催

事變下에 未曾有의 緊張裡에 지난 二十三日에 終了한 道知事會議는 半島施政에 劃期的意義를 齎來하야 南總督으로부터 五大政策의 强化와 內鮮一體、時局對策의確立、國民運動의統制强化等三大綱領을 闡明하게되엿는데 同會議에 繼續하야 열릴 定例本年度各道警察部長會議는마치내 明二日부터 三日間總督府第一會議室에서 開催하기로되엿다 知事會議에서 闡明된 施政方針의 具現은 朝鮮內治安의確保를 其根底로하고 特히今回事變以來 半島警察界는 率先하야民衆啓導의 第一線的 任務에當하고 時局認識周知徹底에 多大한役割을 다하야 가장民衆의信賴의 協力을 獲得한 此際 今回의會議는 이點에서 特別한意義를가진것이라할것이다 即會議第一日(二日)은 午前九時부터 開會하고 南總督으로부터 內鮮一體의 精神을基調로한 警民協力의 實을擧할 警察官의責務를 强調하고 다음에 增永高等法院檢事長의 訓示가잇슨後 다시 三橋警務局長의 警察行政全般에 亘한訓示를行할터인데 事變勃發以來軍需輸送 警戒 防空 防諜 防疫 言論의指導 志願兵制度實施를爲始하야 刑事 交通 保安 衛生等一般警察行政에 자못 多岐多端을 極하여잇는 現狀이므로 警務局長의 訓示도 此等諸點에 對하야 簡明率直히 指示를 與한다고해도 約二時間을 要할터이므로 이에伴하는 警務局各課及他局課軍部等으로부터 指示 注意希望事項도 자못 膨大하게準備되여잇고 一方事變下에잇서 各道의 管內狀況도 一段特異性을 띄게될것은 當然한터 前記民衆의啓導에 對하여는 三橋警務局長이抱懷한 警察行政의 本領인警民一致方針이 如斯한時局下에잇서 가장 民衆의心情을 찌를 結果를 招致하리라고 期待되므로 이러한意味에서도 今回의會議는 一層緊張과興奮한協議가 遂行되여 半島警察行政上에 一時期를 劃하지안흘가 多大한 期待를集中하고잇다

朝鮮民事制度와 隱居制度를改定
中樞院本會議에諮問

總督府法務局에서는 朝鮮民事令의改正에 關하야 目下鋭意硏究를 進行하고잇다 그眼目으로하는바는 內鮮一體에잇서 可及的朝鮮舊來의 慣習을 打破하고 急速히 改善不能한것은 漸次內地民法에 近似케 하려고 留意하고잇는데 來二十、二十一兩日總督府에 開催될 今年度中樞院本會議에『朝鮮에 隱居制度를實施할必要가 업슬가』하는 諮問을 附議하야 그意見答申을 求하기로되엿다 右答申에 基하야 朝鮮民事令을 改正할境遇에隱居制度를 이에加할 意向으로現在朝鮮에는 隱居制度가 實施되지안는關係上 父親이年老하야도 實權은 그子에잇서도 法的으로認定치안하야 種種財産權 其他에도 支障이생겨 實際에는老衰者가 隱居狀態에 잇서도그嗣子는 公的으로 何等權利를認定되지안는 現狀임으로 隱居制度는 民事令改正과함께 必然考慮될것으로보인다

日滿實業協會

日滿實業協會에서는 來五月二十七日 京城에서 第五回定時總會를開催키로되엿는바 同總會에 附議할事項은 理事會에서 左와如히決定하엿다고

一、日本海經由內鮮滿의 連絡發展促進에關한件(本部提出)
二、朝鮮에잇서의 國防産業特히重工業擴充에關한件(朝鮮支部提出)
三、日滿支間의 資金、物資流通圓滑化에關한件(關東州提出)
四、任期滿了에伴한 役員全員改選에關한件

佛伊交涉 秘密主義로進捗

【羅馬三十日發同盟】佛伊交涉은 기다리마주내 再開 三十日午後샤노外相은 佛代理大使 부롱데르氏와長時間에 亘하야 懇談을遂한바부롱데르代理大使는 샤노外相의 알바니아 訪問中 巴里에一日歸國 今後의 交涉方針에 對하야 봉네外相으로부터 詳細訓令을바덧고 英佛會談에도 對伊交涉에 對하야 完全히 意見이一致된關係上 今後交涉의圓滑化가期待되는바 三十日의會談은極히 有効裡에終始하엿다는以外 內容은一切發表되지안햇다 兩國政府는各種의 臆說에依하야 交涉이阻害될것을 念慮하야 今後當分絕對秘密主義로 會談을進捗시킬方針으로 解釋된다

長谷川中將 凱旋途上에登程

【上海一日發同盟】三十日朝 旗艦出雲을 退艦한 長谷川前支那方面艦隊司令長官은 事變以來 처음으로 陸의一夜를 지내고 一日은 早朝부터 通常禮裝을가추고 再次『出雲』에오르러 各司令長官 幕僚陸軍各部隊長其他 官民代表에게 訣別의人事를交한後 招商局碼頭一帶에 充滿된歡送의 盛大한 歡送에應하면서 軍艦〇〇로 爽快한五月의 微風가운데 感激어기픈 上海를뒤두고 凱旋의 途에올라 一路故國으로 向하엿다 그러고長

傷兵保護院 各療養所新設

【東京電話同盟】傷兵保護院에서는 聖戰에傷한 傷兵更生을爲하야 結核療養所 精神療養所 溫泉療養所 再教育所等의 新設을立案中이던바 最近軍部方面의 要望도잇서 于先結核療養所를 第一着手로 急遽具體化키로 決定하고 明二日岡田副總裁를 中心으로하는局課長會議에서 院議를 綜合한後 三日부터 開催할 地方長官會議를 利用하야 各府縣知事에 豫定候補地에 關하야 交涉한後 軍方面과 協議한後 五月中에 단번에 十五個所를 設置할方針인데 十月中에는 全部完成收容할豫定이다

物的總動員을喚起
青年層에主旨徹底
國策協力組織化의第一步

【東京電話同盟】政府는 事變에對處할 根本方策으로 擧國國民精神總動員에依하야 時局에對한國民의 精神的擧國一致에 對하야 協力을求하엿는데 事變第二期에 入하는同時에 如斯한心的方面으로부터 하는 總動員運動뿐만아니라 國內物資의 消費節約을 徹底케하야 生産資源의確保、生産擴充、財源獎勵等 物質的方面으로하는 總動員을 喚起하기로되여 其方針은 지난廿八日閣議에서 決定하엿스므로 近近 其具體的項目、슬로간等을決定한後 政府는 各府縣青年團代表를 招集하야 政府의 物的、心的總動員運動의 趣旨를 徹底케하기로되엿는데 政府의 손으로하는 如斯한 國策大衆化의 運動은 從來그例를 보지못한바로 青年層의 獲得으로 政府의 强大한 國民的 背景을 形成시키려는 其野心的 企圖인데 所謂新黨組織과는 別個의意味로 近衛首相이 일직부터 意圖한國策協力의 組織化의 第一步로 자못注視된다

議會制度審議會 水野氏總裁受諾
一日首相、水野氏訪問

【東京電話同盟】近衛首相은 議會後의政治的第一着手로서 旣報한바와가티 懸案인 議會制度의 改革에進出하기로되여 旣存의選擧制度 議院制度 貴族院制度의 三調査會를統合하야 一大諮問機關을設置하고 總裁에는政府部外로부터 權威者로서 水野鍊太郎氏를起用할方針을決定한後 船田法制局長官으로하여금 同氏에게 內交涉을進行케하엿든바 受諾의 意向을 示하엿스므로 諸般의準備를 進捗하는同時에 近衛首相은 一日午後二時 芝白金猿町의私邸로 水野鍊太郎氏를 正式으로訪問하야 政府의 決意를 披瀝한後 議會制度審議會設置의趣旨를 述하고 總裁就任을 懇請한結果 水野氏는 快히 이를受諾하기에이르럿스므로 首相은다시 今後의 審議方針等에 對하야 隔意업는意見의 交換을行하고 同三時辭去하엿다 그러고 政府는 水野氏의 總裁就任受諾으로 議會制度審議會의 官制化할 委員銓衡을急히 한後 本月中에라도 第一回總會를 開催할方針이어다

世界週史

獨大建艦計畫

英、米、佛三國의 大建艦은 必然的으로 列强의 軍擴熱을 煽動하게되엿는바 世界大戰의結果、海軍에잇서 列國에比하야 不得已劣勢를 保持하게되엿든 獨逸은 最近마츰내 大建艦에 着手하야 目下 總數五十一隻의各種軍艦을 建造中이라고한다。이計畫이 完成되는날에는 獨海軍力은 主力艦一〇隻、航空母艦二隻、甲級巡洋艦三隻、乙級巡洋艦一〇隻、驅逐艦三十九隻、潛水艦六十一隻、總數百二十五隻으로되며 世界의 有力海軍國의 하나가 될것이다。

英人民戰線結成

英國勞動黨의 內外政策에 反對하는 各種團體의 結成運動은 最近政府의 國防高度化計畫을 契機로 드디어 具體化하게되엿는바 이 運動은 西班牙人民戰線政府援護의 運動을 中心으로 마츰내『유나이틋드·피-스·알라이엔스』라고 名稱을統一 平和黨『유나이뎃드』에 하나 其實은 社會主義者 平和主義者及反파시스트를 糾合統一한 人民戰線結成을 目標로하야 次期總選擧에잇서 現內閣의打倒를目的하고잇는 大衆運動이다。

國府公債募集

國民政府는 開戰以來 財政的均衡을圖키爲하야 昨年九月一日附로 五億圓의 公債를發行하엿는바 最近開催되엿든 國民黨臨時全國代表大會의 決議에依하야 다시第二回國防公債 五億圓을 發行하기로 되엿다한다。

安北、汾西占領

二十五日早朝부터 門頭、天玉山을 本據로하고잇든 安北城攻擊을爲始한 原口、近衛、吉田各部隊는 城內에서 頑强히 抵抗하고잇든 支那軍을 壓迫하야 同日午後 完全히 同城을 占領하엿고 一方 眞野部隊는 同日午後六時 殘敵을 掃蕩하고 汾西城을 占領하엿다。

英波協定調印

英國政府는 前부터 波蘭政府와의間에 海軍協定締結에 對하야 折衝을 거듭하여오든바 드듸여 兩者間의 意見이 一致되여 四月二十七日午後 英外務省에서 英波海軍協定의 正式調印을하엿다。

同和號事件解決

四月二十六日午後 汕頭海上에서 英國船同和號上으로부터 我軍艦이 狙擊을바더 이와 交戰中 突然英船同和號를 拿捕하엿든바 英國側의 主張에依하야 左의條件附로 二十八日圓滿解決을보앗다。

一、犯人에對하야는 迅速히 我方에引渡할것。
一、事件이發生한 一帶는 海賊이 橫行하므로 討伐의必要、第三國船의 出入으로因한 事態의發生을 避키爲하야 此等船舶의 取調를 一層嚴重히할것。

列國空軍勢力
米航空年鑑新報

【紐育二十八日發同盟】米國航空商業會議所는 二十八日 今年度의 新航空年鑑을發表하엿다 同年鑑의主筆인고스氏는 英國에서論文을發表하야 各國空軍의 現狀을 比較檢討하야 左와如히 論하고 잇다

內容의充實한 英國의 空軍再軍備計畫은 極히精細한것으로 空軍勢力에 獨逸을凌駕하려는 外交政策과相俟하야 一九三八年度에잇서서의 各國空軍 計畫中 가장 精細를極한것이오 蘇聯에서는 航空工業의 各部門을 通하야 女子의作業能率이 顯著하게 男子를 凌駕한것이 判明되엿다 歐洲諸國 就中 英國佛國等은 民間航空의 助成에 至하기는 國防의 假面에 숨어서 着着空軍建設計畫을 進行하고잇다 獨逸 伊太利 蘇聯의 三國은 大空軍建設을 進捗시키고잇는것은 周知의事實인바 그空軍은 相對國의 軍備가 整頓되지못한 눈치를보면 紛爭發生의初期에 곳決戰을하야 戰鬪를有利하게 引導할것이다 佛蘭西空軍의 半數以上은 各國第一流의 空軍에對하야서는 到底히 對敵할수업는 스피-드임에 日本은 空軍充實에 努力하고잇다 米國은 航空機製作에對하야 一層硏究를거듭하지안흐면 以上의 各國으로부터落伍할것이다 그리고 同鑑은 例年各國空軍勢力의 比較表를 揭載하는것이常例인데 各國모두 戰時에準하는 嚴重한 機密制度를 實施하야情報入手가 困難하게되어 空軍比較表를 作成할지라도 想像에不過할 念慮가잇다는 理由로 今年度는 比較表를 揭載치안햇다

日曜氣配

◇株式=지나친反動으로 小康하여서도 아직鍛鍊을要할터로 正整理相當進捗氣配手堅하다
大新 [illegible] 東新 [illegible] 鐘新 [illegible] 滿業 [illegible]
◇期米=天候順 産地賣出을 見越하나 新甫十錢方上觸豫想에 氣配手堅하다 氣配五十錢見當
◇綿絲=小甘

本社參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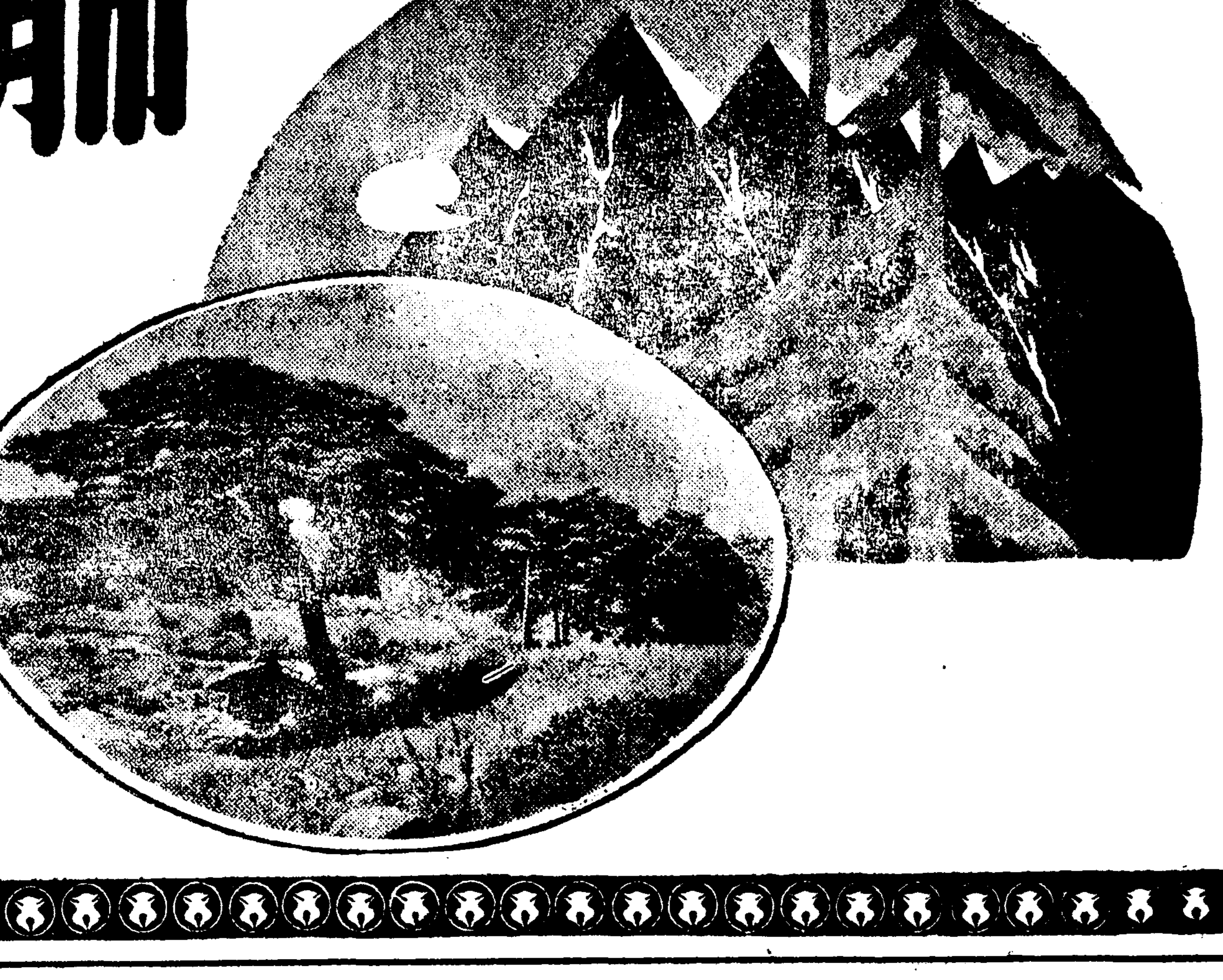
▲咸南咸州郡退潮公立尋常小學校生徒七十六名 魏斗煥、林晦準氏引率下本社見學
▲全南莞島郡金日面 金塘尋常小學校生徒三十名 宋希錫氏引率下本社見學
▲京城東部隣保舘婦人會員四十六名 尹定模氏引率下 本社參觀

八面鋒

◇産金買上價를 다시引上하야 一瓦三圓八十五錢으로햇다고。
◇그러고 보면 一匁當十四圓四十三錢으로 現在보다 三十錢이 비싸지고、舊平價에 比하면 實로 三倍의 暴騰。
◇黃金狂時代라할것도 當然한 말 金一貫이면 百石거리 土地보다 비싸니 金鑛할사람이 만치 안호랴。
◇그러나金갑시 비싸단 말은 돈이흔하단말、돈이 흔하단 말은 物價가 비싸단 말。
◇돈은 흔하고 物價는 비싸면物所有者는 조흐나 俸給生活者 勞働生活者는 큰 問題。
◇그뿐아니라 物價의 騰貴는다시 再生産品의 物價騰貴를招來하야 안될러를 招來할憂慮
◇消費節約 動儉貯蓄을 奬勵할도 當然。

今日夕刊及臨時朝刊合八面

肺病 全治藥 アリチン(A)!



藥學界의權威
藥學博士 加來天民 先生이
保健朝鮮을爲하야 十數年苦心硏究한結果 發見한
肺病退治藥アリチンA
全鮮五百餘病院에서 絕讚을받고잇는アリチンA
어偉大한 アリチン으로 肺病을 退治하자!
◎アリチンA는新强壯劑로精力養成에 奏効하고 더욱 肺病에特効
◎アリチンB는 從來ワクチン注射와 달리純植物成分으로제 製劑한新內服用强力腸內殺菌劑로 各種傳染性胃腸疾患의豫防及治療에特効
"事實은 絕對의眞理다"

包裝價格
A號百球3.00 二百五十球7.00
B號百球3.40 二百五十球8.00

Allysin アリチンA

製造元 天一製藥株式會社
發賣元 天一藥房洋藥部
京城府禮智町

C6號

死藏된우리文化遺産 豪勢를大衆에이바지
閑良舞、上佐舞、鶴舞等12種
明二日府民館에서五十四名出演

古典舞踊大会

본사주최의 특산물전람회를 기회로 민속(民俗)과 고전무용을 통한 고전예술에 대한 소개가 잇서서 ... 오는 이일밤 일곱시반부터 시내 부민관에서 조선고전무용(古典舞踊)의 큰 모임이 열리게 되엿다 이에 출연하는 조선음악무용연구회(朝鮮音樂舞踊硏究會)의 전회원을 망라해서 고대무용인 승무(僧舞)를 위시하야 단가무(短歌舞) 칼춤 한량무(閑良舞) 신선음악(神仙) 상좌무(上佐舞) 살푸리춤 사자춤 태평무(太平舞) 학무(鶴舞) 급제무(及第舞) 사호락유(四皓樂遊)등 열두가지무용을 상연하는데 출연인원이 오십사명으로서 실로 고전무용의 전람회를 소개하게되엿다 오래동안 빛을보지못하고 자 소자멸의 상태에 빠저서 동호인으로 하여곰 애석한생각을금치못하게하던 우리의 고전무용이 오늘에야 비로서 소개되고 발전되는것은 조상이 전해준 ... 회를 계속하는데 잇서서 조흔 기(妓)가들은 말할것도 업거니와 사오십된 노인으로서도 아직까지 이러케 천무용을 한 고전무용은 대해보지못하엿다하니 이모임이 얼마나 거창한것임을 짐작할수잇다 더욱이 ... 기괴과한의상과 그시대의 면모를 알시하는미는 부민관개설이래 처음으로 ... 엄진한 무대가 아닐수업다 그가운데서는 학춤(鶴舞)가튼것은 조선춤 가운데 제일고상하고 아름다운것이다

散策대신"特産展"
날세구진五月의첫날첫空日
早朝부터觀覽客續到

회기를 아프로 단사흘을남긴 본사의 특산품전람회는 아프로 막을다칠날을 며칠남겨두지안코 잇끼는 오히려 붐다 일요일은 첫공일이라 봄날을 향락하려고 교외로나가는 사람도 만키는만햇스나 아침부터 일기가 흐리고 오정가까와서는 비까지 부실부실나리니 천후를 념려하고잇던 사람들은 교외산책을 나가려던길로 특산품전람회로 몰리어 전람회장은 아침부터 역시 ... 이루고잇섯다 모이는 관중은 상점원이며 일반학생에 가정부인들 각층의사람이 모히어 우리특산품의 자랑스러운 제품에 감탄하며 저마다 즉매점에 모이어 실용품을 사기에 여념이 업섯다 개중에는 지방에서 수학려행온 학생들은 요행 전람회의 기회를 어더 조선팔도의 특산진대성을 한자리에서 볼수잇는 조흔기회를 어든것을 모다 감사하고잇섯다

搜索願

전북익산군 ... 면東촌리(東村里) 토거삼랑(土居三郎)의 동생 토거용시(土居勇市)(三二)는 사업에실패하고 이십오일 대구(大邱)로부터 자기집으로 귀환중에 기차속에서 행방불명이되엿다는데 용시는 회중에 현금일천이백원이 들어잇섯스며 사업에실패한후에 일상 비관하여오든만큼 혹시나 자살이나 하지안헛나하고 자기형 삼랑으로부터 전조선각서에 수색원을 제출하고 그의행방을 찻는중이라고한다

退廳後紙屑調查
用紙節約圖謀
鐵道局의認識徹底策

철도국에서는 『총후보국강조주간』에 삼만여종업원을 동원시켜서 려객에 대해서도 그인식을 주게하는등으로 활동하고 잇는터인데 철도국안에서 종이절약에 대해서는 특별히 주의하고잇서서 퇴청한뒤에는 휴지등을 일제히 검사하야 거죽만사용하고 아직속장도 사용할수 잇는종이가 한장이라도 발견되는 때에는 이것을 일정한 장소에 진렬하야 사용한본인의 반성을 시키는 동시에 일반의 자각을 시킬자료로 삼고것다한다

發展京城의兩大夾門
東、南京城驛새登場
鐵道開創以來舊名"永登浦驛"과"淸凉里驛"
今日부터改名으로데뷰!

경부선(京釜線) 영등포(永登浦)역과 경원선(京元線) 청량리역(淸凉里驛)은 일일부터 오랫동안 불리오든 일홈을 고처서 영등포역은 『남경성역』(南京城驛)으로、청량리역은 『동경성역』(東京城驛)으로 새명칭을 걸고 세상에 발전하기로되엿다 생각하면 영등포역은 이로부터 사십년전 즉 명치삼십이년구월일일에 경인선(京仁線)철도가 개통됨에따라 창설된것으로 그동안 세태의 변천함에 변해하야 경부간선에서 중요역으로서 오날에 이르게된것이다 창설당초에는 려객(旅客)은 일년간승차인원 오만삼천일백륙십인 하차(下車)인원 오만이천사백이십오인으로 합계 십만오천칠백팔십오인이엿스며 하물(荷物)은 발송(發送)이 천팔십팔돈(噸) 도착이 천사백오십륙돈으로 합계 이천오백사십사돈이엿다 그러고 그수입으로는 여객으로 일만오천이백삼십칠원 회물로 이천일백오십원 합계 일만칠천삼백구십륙원이엿다 그런데 최근에는 소화십이년도의 조사를보면 승차인원 삼십이만삼천칠백구십팔인 하차인원 삼십사만오천구백십구인으로 합계 륙십륙만구천칠백십칠인이나 되며 회물은 발송 구만팔천사백칠십삼돈 도착이 십오만칠천팔백십구돈이므로 합계 이십오만 ... 돈이며 그수입은 ... 원이나 된다

또 청량리역은 명치사십사년 ... 에 개업하엿는데 금년에 스물여덟해째이다 개업당시의일년간 려객승차인원 팔만 ... 이엿고 ... 그런데 작년도한해동안의 성적을보면 려객은 승차인원 삼십 ... 이다 이와가티 영등포역이나 청량리역은 작구발전되어가는 현편인데 때마침 재작년부터 영등포역은 시흥군(始興郡)으로부터 경성부에 편입되엿스므로 이번에 드디어 세상사람에게 불리어오든 정든명칭을 고처버리게된것이다

□寫眞은改名된永登浦驛看板□

新萬物相도 危險!
外金剛山火擴大

【長箭】기보=지난 사월이십구일에 외금강 천불동(外金剛千佛洞)에서 일어난 산화(山火)는 며칠을 계속하는 강렬한 바람때문에 그날밤으로 천불동일대는 불바다를 이루고 남애(南涯) 사호(沙湖) 주헌(注獻)등 부락부근에까지 연소되엿스므로 경찰 소방조 부락민의대부분이 출동하야 소화에노력하엿스나 인력으로는 어찌할수가업슬뿐더러 금강산은 다른산보다 길이험하고바람의방향이 일정치아니하야 위험하기짝이업스므로 행동하기도 곤난한상태이여서 삼십일오후에 이르기까지도 화세는 조금도감하지아니하고 점점확대되고잇스나 당국에서는 위선리군속(李郡屬)이하 직원두어명을대동하고 현장에 급행하엿는데 정보여하에따라서는 직원총동원으로 급거현장에 출동하야 이재민구조에 활동할 준비를하고잇는한편 영동경찰서에서는 경무주임의지휘로 영동 소방조원을 비상소집하여가지고 현지에 급행하야 방금진화에로 력하고잇다한다

京城驛二層에서
白晝車票盜難
特種補充券五十五枚

경성열차구(列車區)에서는 어느 날오후에 영시반으로부터 약 십분사이에 기차승차권 오십오매를 도난당하엿는데 그곳에서는 작작 ... 도난당한 일이 ... 필에 보지고서 사방으로 그럼에 ... 인물 찻는중인데 열차 승차권 특종보충권(特種補充券)이여서 어떠한것을 ... 당한자인지 ... 경성열차구안 ... 에서 생각할이여서 범인은 그 곳에서 ... 를 찾아는자로 상당히대담한자인줄알엇다한다

國旗揭揚과勤勞作業
報國精神을徹底
銃後報國强調週間第六日行事

금일일은 총후보국강조주간(銃後報國强調週間)실시 제륙일이다 이날은 비상시국에 가장합하야 근로보국일(勤勞報國日)인데 행사항목으로는 『국기게양』(國旗揭揚)과 근로작업에봉사할것』등의 두가지이나 과거오일동안 관민협력으로 칠정실시한결과 근본취지에 이날은 과연 막대한효과를 어덧다 첫새벽가티 아러나서 국기를 내다달고 위선집안일을 비롯하야 눈에띄는대로 손에 잡히는대로 가위를펴면 실과 ... 작업을하야 그수확은 실로크고 큰바잇다 이러케해서 어듼이의 ... 다가 총후보국의 근본정신에 이바지하기로되엿다

大學、專門驛傳競走
水原高農制覇
六個校參加로猛烈한接戰

朝鮮學生陸上競技聯盟主催의第四回 大學、專門校水原↓京城間驛傳競走大會는 五月一日午前十一時卅六分에水原北門을出發하야 漢江通 龍山中學校門前까지의 三八、二九四米(九里二十五町四十五間) 코—스에서 擧行되엇는데 參加校는 昨年의覇者 普專을비롯하야 醫專、水原高農、帝大豫科、高工、高商、等六個校로서細雨나리는 京水街道에서 激戰을 演하드니 高農軍이 斷然制霸하엿다 所要時間은 二時間廿四分廿一秒인데 從來의 決勝點은 南大門通廣場이든것을 龍中前으로 變更하기때문에 이번이 初記錄으로되엇다

▲1水原高農(韓雅烈、高田、岡見、金光宇、李穗承)二時間二十四分二十一秒
▲2普專(姜明鎬、吳基運、芮宗煥、韓仲熙、洪顯文)二時間二十八分十二秒
▲3高工(朴英煥、中川、三好、鄭煥鼎、西崎)二時間三十分九秒
▲4醫專(川越、李河潤、宋大燮、王寶根、柳邦變)二時間二十分四十七秒
▲5城大豫科 二時間三十五分五秒
▲6高商 二時間五十四分二秒

脫獄準備周到!
拳銃마진看守二名重態
海州刑務所罪囚脫獄事件

【海州支局電話】『아메리카』영화에서나 볼수잇는活劇이던 『갱』식탈옥을 감행한 사실이 상세한 데 오후 해주형무소(海州刑務所)에서 잇섯다는것은 기보한바와갓거니와 자세한것을 알어보면 죄수한명이 아니라 두명이 일후부터 탈옥을 공모하고 기회를엿보고잇던중 당일 간수들의 눈을피하여 권총과 창고속에가서 간수복을 훔치거린고 떨어나 ... 대로 체포되엿는데 덜어나온 죄수를 부들려든 빈야(濱野)간수부장 사촌(寺井)간수부장후명은 죄수가쏜권총에 총상을입엇는데 빈야는 비교적피다리에 총상은 가슴과 왼팔에 각각부방이 이대로 중상이여 죽시도 인 ... 원(道立病院)에 입원치료중 인데 생명에는 관계업다한다

本町署서 豫防注射

부내본정서에서는 어제부터십 일까지 관내 사업자에게 장질부사예방주사를실시키로되엇다

아사히 목
アサヒ号
カタログ進呈
京城府南大門通 アサヒ商會
定價 四四五圓(京城渡)

永同郡下에大火!
一洞百餘戶全燒
人畜의被害도相當할듯해
郡當局、罹災民救助에全力

【永同】지난삼십일오전열한시경 영동군학산면지내리(北永同郡鶴山面池內里)에 큰불이 이러나 전동리일백오십여호중백여호가 삼시간에타버리고 삽십일밤까지도 맹렬한화세는 꺼칠줄모르며 연소를계속하고잇다는데 전기동리는 산간지대이라교통이불편한관계로 아직그자세한 정보를접하지못하얏스나 인축의 피해도 상당하리라한다 군 당국에서는 ... 연기로인하야 어느부분이 타고잇는지 점점 방향을 알기곤난하다는데 화세(火勢)는 신만물상(新萬物相)과 오만물상(奧萬物相) 방면을 향하여오는데 이 ... 보가잇서서 외금강소방조에서는 정출동하야 방비에전력을다하고잇스며 오정리(溫井里)를 위시하야 부근의부락민들도 긴장하야 대기하고잇는데 만일 금명간으로비가오지안코 마를상방면으로 연소된다면 우리의자랑인 금강 ...

江東에도불!
八戶를全燒
罹災民五十名

【平南支局電話】지난이십구일오전열한시경에 평남강동군원탄면봉두리(江東郡元灘面鳳頭里)이선직(李善稙)의집에서 불이나서 때마침 몹시부는 바람에 불길은 사방으로 퍼저 그이웃집 일곱호를 전소하고 겨우동리사람들의 필사적노력으로 오후두시에 진화하엿는데 원인은 방금 조사중이며 손해는 약사천원가량이라한다 이재민은 오십명가량으로 별안간 입을것 먹을것을 태워버리고 길거리에방황하는참상으로 친척조차업서구제도 밧지못하는 이재민은 군에서 임시로 구제하고잇는중이라 한다

十六歲少女가
叱責듯고飮毒

『二루ㅡ미ㅡ썬데이』! 아침에선 선술에 몸을매여달고는리진 종년여자의시체를 미처거두기가바 ...

大學病院構內서
珍·電話線에結項
眼疾悲觀한看護女自殺

시내대학병원(大學病院)안에서 세상에도 진기한 환자의 전화선에 목을매여 자살한사건이 일어나서 신문에는 ... 지고잇다 ...

法專校長鹿松氏
胸像除幕式盛大

십일년간 법전교장으로 육영에 종사하야 ... 위하야 ... 씨의 흉상제막식 (胸像除幕式)은 하오 ... 세르동씨의 ... 에서 ... 엿는데 열두서반되이 ... 을추하하는 여러가지이섯다 (사진은 제막식장)

洋服竊盜

... 경기도김포군하성면마조리(金浦郡霞城面麻造里)사백구십이번지 김성택(金成澤)이는 부내남대문통오정목삽사번지 기산(龜山)양복점에 들어가 양복사는 척하고 주인의눈을기여 양복두벌을 훔처가지고 나오다가붓잡혀 본정서에 넘기엇다

今夜의라디오

一日(日曜)

▲午後六時 傳記이야기『이달에난偉人』鄭寅燮 ▲六時二十五分 講演『燃料節約의方法과 그意義』高工敎授 安東赫 ▲七時二十分 歌謠曲 南一燕外 齋林 伴奏 DK管絃團 ▲八時慶樂—太平通朝鮮日報社演舞劇場으로부터中繼 ▲八時十五分ㅡ모어콩트『家庭會議』金映玉 韓銀珍 ▲八時三十分歌曲一、初調唱歌 二、牛葉三弄 四、界樂 五、篇 安鶴仙 黃菊香 洋琴金相淳 大笒金永根 杖鼓金一字 ▲九時 野談『聚樂亭』申白老 ▲十時十分 鳳鳴講座『家庭의根本』城大敎授高橋亨

第二放送

▲午後六時(大)國史劇 ▲六時二十五分(平)講演 ▲七時三十分(東)管絃樂 ▲七時四十分(東)講談 ▲八時十分(東)落語 ▲八時三十分(東)浪花節 ▲九時五分(東)歌謠曲

天氣豫報

豫報 今夜와 明日도흐리며 小雨가잇고 金曜도 이와갓다

最高溫度	二三、九
最低溫度	一一、五
今朝	一〇、三
正午	一七度五

色鉛筆

꼿치가고 신록이오다 꼿도 조커니와 기운차게무성하는 녹엽의 아름다움을 어찌 버릴수잇스랴 ▲철쭉 안올두고 반겨웃는가 하면 밤사이에 생속시드러지는꼿 ▲꼿차신의 운명도 가엽다면 가엽다 하겟지만 사람에게 마음홀주는 듯달래는듯 웃다마는꼿 ▲보랑복이무럼무럼자리서 청청한기운을 빼치고 빼치어 뜨거운 볏아래 오히려 생명력을 ... 자랑하는 나무 ▲꼿치야말로 단서롭에 예비하면 ... 파는 거리의창녀의 웃음이나 다름업는것이 아닐까 소녀이 한번에 처함이 쓸어지는 그정 경을를때 면구나 그러치안흔가 ▲하물며 비는내리다 신록이 이비를 마시하야 더욱힘차게 자랄것이 비먹고 도미먹고 나가

國民靴大特價七圓五十錢!
多年의努力으로 舶來品代用에 完成을得한 今日이는오로지 過去의 江湖諸位의 愛護하여주신 結晶으로 밋삽고 滿天下에 大宣傳하기爲하여 特製國民靴로 命名하고 大廉價¥7.50에 此期限一漏의恨이업시提供하오니勿失此期하시고 一次愛用하시라
二號 國民靴
舶來品代用總革靴
型錄請求次第無代進呈
吉州支局 電話一一九番
平安製革社洋靴部 平壤府東大院里私書函八十七號 振替京城一九四三四番

手淫의惡癖을가진
男은反省하라
獨逸서는思春期의男子가手淫을모르도록 그로ㅡ브를끼워서 재운다
獨逸의 敎養잇는家庭에서는 思春期의靑年에게 手淫을알지못하게하려고 夜間에는特殊한 그로ㅡ브(장갑)를끼워재워서 이것을 未然에 防止하는데 그때문으로 成長後는 潑剌한肉體美의偉大한 體力과完全한 性慾을가진理想的男子로되여 金色天上의愉樂을 想像케하며國民全體의元氣도 또한大端히旺盛하다 이러케해서男子의性敎育에成功하고잇는바이나 諸君中에 現在惡癖으로辛苦하는男子는卽時反省하지안으면 可憐한運命의原因을만드는것이다。即生殖器의發育을阻止하야短小包莖이될뿐아니라 局部는全身中가장敏感하게 神經의分布된곳인만치 神經系統에 劇烈한衝擊을주어 中樞神經에 波及해서 陰萎早漏、遺精、夢精을 續發하고 腦力이衰弱해서 눈은 光彩를일코 筋肉은弛緩하야 조그만한 動作에도 心臟의 鼓動이 甚하고 記憶力思考力이減退되며 ...
我國唯一專賣特許의フーブ强大法
…의男子로서의資格을 回復하야 完備하야 前途의 幸福을 開拓하라 그리고藥書에新聞名과 キヨ送れ라고記入해서 申込하면 普通人의生殖器의發育程度、緊張時의統計、手淫과包莖의 有害한說明 年齡에따른 適當한 回數其他男子必讀의事項이 滿載되여잇는最新强大法을無代贈呈하니 速히一讀해서自己의 性器가普通程度가되는가어떤가를 檢討하라
東京市中野區城山町 東京眞空療法硏究所

救急靈藥 天寶水
식산,토사,곽란,구기,수취,두통,기울,중서,중한,수토불복,선차현훈 등에특효。
▲代理店特約店、配置賣藥大募集 商報請求次第無代進呈
發賣元 平壤永生堂製藥社 平壤府鍾路里(電話二〇六七番) 振替京城一四一四八番
定價 三圓·五圓 (天寶水)
常備家庭藥
▲五大名藥 一、崔氏秘傳膏 一、胎養調經湯 一、ネツピリン 一、滅癬水其他 各種製藥本舖

폐병 부족증 늑막염엔
나오페ㅡ(NAOPER)가제일
치질엔
엥구루(AENKUR)가제일
기침해소엔
에치페ㅡ(ECHIPER)가제일
체증속병엔
겡오ㅡ(KENGO)가제일
책임조제니 어떠한책임이든지 짐니다
資本金百萬圓 朝鮮서第一큰藥業會社
京城府西大門電車停留場前(제일큰백오양관)
本舖總發賣元 ケンオー王 神崎神聖堂藥品直輸入株式會社
電話光化門 三四〇 一九九七 七九九 四
振替京城四九五〇番

行政區域擴張압서 各部專門家再檢討
大邱府諸般準備를進行

【慶北支社發】대구부에서는 구역확장은 오는시월일에 실시할예정으로 제반준비를 하는중이나바 구체안에 대한 각부분의 재검토를 필요에 밝두되엿는데 각 파정을필두로 각부계주임자의 복안을 작성시켜오는월말경안에 내무과장에게 그안을 제출케되엿다 그리고각계의 주요한안은 다음과 갓다고한다 一、신편입지구에대한배수공사계획 一、상수도확장 급수계획 一、북、도세、사용료의 부과급징수방법 一、농량미대부사업 一、초등미취학아동수용문제 一、학교증설 주중문제

漁化島共化學校 六年制認可申請

【甕津】황해도 옹진군동남면어화도(東南面漁化島)는 호수일백팔십호에 인구구백팔십사인이 어촌나살고잇는 그리적지안흔 어촌으로서 일직이 도로부터 모범도(模範島)로 지정이되엿스나 아동의 교육기관이 업스므로 일반도민들이 이것을 항상유감으로 여기던바 지나간 소화팔년 구월일에 그곳유지 박근영(朴根永)씨외 여러유지의 발기로 공화학교(共化學校)를 사학년제로 인가를마터가지고 그동안 백오십여명의 졸업생을 내여보내엿스나 원래교사의 불완전하거리라계로 유지에잇는 육학년제의 공립심상소학교에 도저히 미치지못하므로 일반학부형들이 고려하여오든바 마침내 지나간 사월십오일부터 황해도당국에 육년제인가신청을 제출하엿다한다 그런데이공화학교에 현재재적아동수는 일백일명으로서 선생은 두분이잇스나 박봉한명을 도중퇴하려고 적임자를 물색중에잇다한다

終熄모르는 各地祝融禍
陽德郡에또山火 千餘町步를燒失
道山林課員現場急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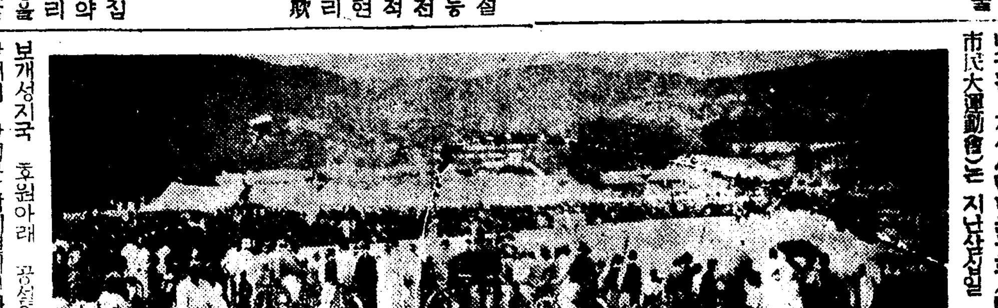
【平南支社發】양덕군하(陽德郡下)각산림에서 산화가 빈발하여 만흔손해가잇다함은 누보한바잇거니와 양덕군양덕면 낙천교(陽德郡陽德面洛川橋)서면도모범림(道模範林)에서 무서운불이 일어나 세로 타고잇는대 사회를 어십구일에야 발견하고 양덕군청과 양덕서를 우시하야 각소방조부락민총동원하여 진화에 노력중이나 화동의효과도 업시 욱창한 삼림은 요란한 음향과가티 열통에 부채질하면서 일천여정보의 대수해(樹海)를 불살르키고 여전히 연접한산림지대에 확대되고잇다 원체 봄가이 맹렬하야 지화는 대단히곤난하야 산림과에서는 …… 는 막대한수자에달할것이라한다

延燒五日間
青松、盈德、安東三郡山火 三百餘名出動鎭火中

【慶北支社發】빈발하는 경북도내산화—지난이십오일에 발화되여 연소중인청송(靑松)영덕(盈德)안동(安東)삼군에 빼친대산화는 일시 화세가 진압되는듯하든바 이십칠일 오후십시경 안동군길안면(吉安面)파천면(巴川面)에 연소되고 일방영덕군에서는 다목농림(多木農林)불이흥업(不二興業)소유림에 연소되엿는바 그피해정도는 아직판명되지안엇다고하며 청송군의 연소면적도 서수천여정보에 달한다고하다 급보접한 경북도산림과에서는 가등(加藤)기사가 현장에 급행하여 산림보호조합원 부락민 경찰판등 삼백오십여명을 동원시켜 목하진화에 필사적활동을 하는 중이나 삼십일오전까지 아직진화되지안엇다고한다

『리야카』墜落으로 人夫生命危篤

【全北支社發】『리야카』에 짐을싣고 다리를 지나가다가 약 십오여명이나되는둑옹에서『리야카』와가티 추락되어 중상을 당한사실이잇다 어제은 사월삼십일오후다섯시경에 전주부고사정(高砂町)에 사는 김용덕(金容德)이가『리야카』에 기와(瓦)를 면재하고 와산교변을 지나다가 부주의로 인하야 생긴사고인데 부근을 통행하던사람들이 즉시평안병원(平安病院)으로 떠메고가서 응급수당을 하게되엿는바 …… 이 부러지고 행진에 방해가서 생명에는 관계업는 중상이라고 한다



開城市民大運動
空前盛況裡에終幕

【開城】개성의 연중행사로 하나인 개성시민대운동회(開城市民大運動會)는 지난삼십일 본보개성지국 후원아래 공설운동장에서 장엄한 막이 열리엿다 오전열한시— 래청한일기를 축복바더 운동회는게막되닛다 폭죽소리가 전시가를 진동하자 각처에서 운집하는 관중은 삼시간에 넓은운동장을 전부하 성을싼 가운데 사십여종의 경기종목이 흥미잇게 진행되어 대중향락의 유쾌한 노리터전을 이루엇섯다가 동오후오시경에 무사히 막을다던섯는데 이날선수들의 전적은 다음과가다 (사진은 대운동회광경)

【百米】▲一等 梁根遠 二等 崔雄俊 三等 白上福
【二百米】▲一等 楊根遠 二等 張宙炯 三等 趙顯八
【八百米】▲一等 閔成基 二等 張宙炯 三等 崔泰集
【마라손】▲一等 張春興 二等 李重民 三等 李相仁 四等 李根珠 五等 羅運東
【一千五百米】▲一等 閔成基 二等 申敍雨 三等 張宙炯
【各町리ー렌】▲一等 高麗町 二等 北本町
【五千米】▲一等 王□ 二等 張春興 三等 孔張奎
【蹴球리ー렌】▲一等 好生堂 二等 OB團 三等 郵便局
【自轉車二十週】▲一等 尹世重 二等 具然興 三等 全漢成
【自轉車三十週】▲一等 尹世重 二等 具然興 三等 金永載

九名이假出獄

【平南支社發】천장의 가절에 평양형무소에서는 정중한 축전을 거행한후 수형자 아홉명을 가출옥(假出獄)시켯는데 그중에는 녀자한명이 석기어잇섯다

列車火災! 淸穀壹叭全燒失

【慶北支社發】화염을 토하며달아나는열차—지난이십구일 오후열한시오십분발 대구발제이십이열차가 경부선 삼랑진(三浪津)부산기점 십칠키로 유례미콩부근을 진행중 화차중앙부에 떠러저 발화연소하는것을 기관차승무원이 발견하고 정차응급조치를하여 진화하엿는바 화차적재 전부백이십가마니의 살곡이를 전소하여바렷다고한다

人夫難去益深刻
恒久對策樹立을絶叫 平南에要人夫二萬名

【平南支社發】평안남도내의 인부부족문제는 번망기(繁忙期)를 당하여 극도의심각화하고잇스며 여기에 산금장려(産金獎勵)무연탄증산(無煙炭增産)계획까지 수립되여 인부의공급문제는 중대화하고잇다 어떤사태에대처하여 총독부사회과에서도 지난노동자의이동을 허가하는등 대책을고려하고잇는데 작년중의 인부를요하는 공사는 일천삼백만원중에서 팔백만원의 진보를보앗는 남은 일천만원는 금년도로넘겨서 금년도중의 재반공사는 결국이천사오백만원에달하는데 인부공급이 이처럼 원활치못해서는 공사의진보는 절반에도 달하지못하겟다하여 우려하고잇는모양이다 어러한경세미러 처해잇는 평남도내의 공사인부는 서선중앙철도(西鮮中鐵)의 일만인을필두로 최소한도 사천인을 필요로하는 평원군연의공사(平原郡龍田工事)조선화학비료공장(朝鮮化學肥料工場)『일마마네合』등과 이밧게 각공사까지 합하여 실로이만인을 불과하는 수요를 보게되나 그절반을 차지못하는 현하의상태로서는 재반사업친선에 큰지장을 이르키는것은 뻔한사실이므로 근본적 학구책을 수립하라는 요구가 각여지쫄로부터 노파지고잇다

貞操를蹂躪한後 所持金까지竊取

【永登浦】본적을 전남광산군비아면우산리(全南光山郡飛鴉面雲南里)에두고 일정한 주소가업는 리성춘(李成春)은 지난이십륙일경 전북순창군인계면탄리(全北淳昌郡仁溪面□里)에사는 포북행상 박삼례(朴三禮)란녀자를 감언리설로 꾀여서 살림하자고 약속한후 시흥군동면 구로리(始興郡東面九老里)림보(林寶)방에서 수삼차 정교관계를매진후 어서구일새벽 잠든틈에 술라서 그의소지금 사천원을절취하야가지고 도주한것을 영등포경찰서원에 체포하엿는데 전기 리성춘은 어린것을 직업적으로하고 도라다니는자로서 현재에도 처청을 수삼인식 데리고다니는 색마사기한(色魔詐欺漢)이라한다

本報石橋分局後援 蹴球大會開催 來七八兩日間에

【長淵】황해도장연군용연면석교시(長淵郡龍淵面石橋市)에서는 오는오월 칠、팔양일간 석교시민주최(石橋市民主催)와 본보석교분국후원(本報石橋分局後援)으로 석교제일회 축구대회(石橋第一回蹴球大會)를 석교공립심상소학교운동장에서 개최한다는바 그준비에대분망중이며 벌써부터 인기가 비등하다

安邊儒林聯合會創立

유림단체인 경성대동사문회(大東斯文會)유도진흥회(儒道振興會)조선유도대회 동경대일본국민중학회(東京大日本國民中學會)와 안변사립문산학교(文山學校)임원학회등의 관계자 육십여명이상을 모아 여기 비상시의 보국을 목적으로 지난사월삼십일에 전기 각단체대표자총회를 안변에서열고 유림연합회를 조직하엿다 그리고 그날오후 안변경찰서장의 시국강연도 잇섯스며 그 연합회의원씨명은 다음과갓다

會長崔達斌 副會長金炳洙 總務部長李炳幸 敎化係長趙觀翼 民事係長金裕能 學業係長崔霍達 會計係長韓陽錫 理事文得駿 講師文兼進 尹斗善 顧問 金乾謙 崔文弘 代議士李洛柱 崔東弼 金洛旺

營林署瀆職事件
各二年役을求刑 三十日城津支廳에서

【城津】공무(公務)를보는 몸이로 금과게집에빠저 공금(公金)을 횡령한사건 삼명에대한 공판은 삼십일오전열시부터 성진법원지청(城津法院支廳)에서 식원판사(植原判事)주심(主審)과 전전검사(前田檢事)관여로 개정하엿스며 …… 합계 칠천오백사십오원의 공금을 횡령소비한 전성진영림서(城津營林署)서무과원 토교사용(土橋勝義)북조양(北條□)등의 사실심리에 이어 …… 피고등의 범행은 그동기로보아 어디까지나 계획적인것과 또한공모인것 계속적인것등으로보아 정상을 조금도 작량할 여지가 업다는 순량한품고가잇슨후 각각징역이년을 구형하고 오후한시에 폐정하엿는데 언도는 오는칠일이라한다

趙敬玉君凱旋

【全南支社發】광주부황금정(光州府黃金町)에잇는 춘목옥(春木屋)주인 조성순(趙成洵)씨의 장남 경옥(敬玉)군은 경기도 동부파에근무중 작년에 ○○부대속으로 출정하야 이래 북지나산서(北支那山西)방면의 전선에서 활약하야 무훈을 남기고 삼십일 오전열시 사십오분 광주(光州)역착으로 도라왓는데 역두에는 부내남녀중등학교를 필두로 청년단 기타각청년단체편민유지다수의 성대한 출영으로 광주에 도착하엿는바 동군은만주사변시에도 출정하야 훈(勳)칠등을 배수한일이 잇다한다 (사진은 조군)

電燈保證金差別徵收는 協和精神에違反
安東市聯合協議會서論議

【安東】만주제국협화회안동시본부주최의 안동시련합협의회는 지난 이십일부터 며칠동안 시공회당에서 각분회의 의안(議案)을 중심하야 각분회 의안을 제출하야 다시 의안정리위원회를 조직하고 정리한결과 필요한 안건을 상정하기로되여 삼일간에 심의후천 안동시공서 경찰 금융합작재 전의공사의 각당국에 고려를 요망하고 그중 중요한안건은 오월중순에 열리는 안동성련합협의회에서 심의하기로 되엿다는바 금번제의된 안건중 사회문제로관련된 주목을 끄는것은 ▲藤森倶樂部全體會員의件▲職業紹介所設置의件▲勞働宿泊所設置의件▲家賃引下에關한件▲公設質屋設置의件▲內鮮一體精神의滿洲延長徹底의件▲電燈施設受入保證金撤廢의件▲社會機關에對한補助金增額請願의件▲共同 …… 등이엿는바 그중전등시설 수입보증금문제는 종래 시내거주의 일본내지인에게는 전등시설시에 보증금을 징수치안코 조선인과 만주인에 한해서만 전등안게에 대하야 몸금의 이배를 보증금으로 징수하는것으로 이것은민족적 차별을 두는것으로 협화정신에 반한다는것으로 보증금을 징수하려면 어떠한 민족이든지 징수하거나 또는 전폐하던가 …… 정하야 징수의 가부를 정하라는것인데 이문제는 오래전부터 조선인사회에서 문제거리가 되여오던것으로 협의회의 금후의 처결이 크게주목되는바이다 그리며 금번협의회에 출석한조선인대표는 다음의 네분이엇다한다 ▲咸錫彭▲申漢龍▲申麟官▲趙秉□

長篇小說

林巨正

洪碧初 作 金熊超 畵 【94】

소굴 (六十二)

여름날 느즌아침때 지난뒤남치근이집에서 바로 예궐(詣闕)하야 탑전(榻前)에 들어가서 『작야에 해서대적 임꺽정이의 졸도 세명을 체포하와 꺽정이가 동유 사오명과가치 장통방에 모여 잇는것을 아옵고 체포하라고 부장군사 어십여명을 내보냇솝더니 지휘하든 부장이 도적의 화살을 맛고 넘어지는데 군사들이경겁하와 도적들을 체포하지못하고 노치사오니 부하를잘 통독하지못한 신의죄가 막대하오며 꺽정이의 졸도들을 국문하온즉 꺽정이와 그적들의 초사로 꺽정이의 처 세명과 기외에 다소간 갈려이잇는인물 십여명을 체포하얏사오니 꺽정이의 처와 졸도와 기타 갈려인물들 다 형조(刑曹)로 보내옵지 엇지하옵지 합전처분을 정탈(定奪)을 밧자와지이다』하고 알외주 꺽정이는 심상한 도적이 아니요 곳 반적(叛賊)이언즉 비록 처속(妻屬)과졸도라도 형조로 보내는건 불가하니 포청에서 세세히 문초를 바든후 전옥(典獄)에 가두게하고 기외 갈려인물들 형조로 보내서 경중을 분간하야 처치하게하라고 우의분이 나리엇다 남치근이 퇴궐(退闕)하는길로 포청에와 안저서 북간의 십여명은 모두 형조로 넘기고 남간의 여석명만 포청에 남겨두게하얏다 남녀 여섯명의 용모파기(容貌疤記)를 일일이 다 내뒤에 세기집의 원정(原情)을 받는데 거짓을 원정에 한온이의 강도와 주인것이 여지업시 다 들어나서 한온이의 변신청과 본안해가 아우와 서방의 물모로 포청에 잡혀와서 가치게되고 한서 봇밧어 지히게되엿다 세거짓중의 원씨는 원정할때도 여온이아비의 빈소에 포교들이가 리원판서의 딸을 꺽정이가업어 물어더니 로방이인에서 모전따를 잡아내다가 원씨의 근본을 닷지아니하야 남치근이 로방이고 팔에 구석이 비고 동어 잘 열가 녀자로 근본을 꿈이느라 내외다는말이 나와서 조판서(趙判書)일가거이라 당시 남치근이 속으로는 놀라웟스나 재가녀자로 더퍼두고 더밟키지아니하엿다

꺽정이의가집들을 잡은지 사흘되는날 사간원(司諫院)에서포장(捕將)을 탄핵(彈劾)하는 합계(合啓)가 열어낫다

『국가에서 포도청을 설치하고 좌우대장을 둘때 소관(所管)어만로 절목(節目)이 자세하오며 지금 대장의책임을 가전사람들이수탐(搜探)하는것이 무엇인지 체포하는것이 무엇인지도 헤아리고도하지아니하야 대적때가 경기경내에서 큰소요를 지어도 잘치못한것은 오로지 군졸이 얼하지못하고 조처가 합당치못한탓이오다 일전에 대적꺽정이 장통방에 모여잇는줄을 알엇스면 대장된자가 당연히 계책을 내세 다 잡아야될것이어늘 도적들이 도성안에서 횡군을 저항하야 심지어 부장까지 활로 쏘앗다니 이것은 근고에 엄든 변이옵고 도적이 화살한개 쏘다고 군졸들이 사방으로 도망하야 도적의 괴수는 노치고 겨우 그처속과 그졸도를 오륙명 잡앗다니 어린 한심한일이 어디잇소리까 좌변대장 남치근은 먼저 파직시킨후 다시 추고(推考)시키시고 도적을노친 부장파군졸들은 금부(禁府)에 나려서 치죄시키고 또 우변대장 리몽린(李夢麟)은 비단 나이늘것뿐아니라 다리에 종기가나서 전일에서도 행보를 잘못함으로 대장의 중한책임을 감당치못한 것이오족 체차(遞差)시키심을 바라나이다』

사간원 계사(啓辭)는 대지(大旨)가 어와갓고 우에서 나린답(答)은 남치근이 파직은 너무 과하니 체차시킨후 추고하게하고 기외는 다 계(啓)와가티하라하야 좌우변 포도대장이 일시에 갈리게되엇다 남치근과 리몽린의 경원(政院)에 들어와서 몸에 들어왓든 병부(兵符)와 대장패(大將牌)와 전령패(傳令牌)를 돌우바치고 나간뒤 정원에서 포장추천을 일시라도 비여두지못할터이어는 엇지하오리까하고 우에 품하야 포장의 망단자(望單子)를 급히 바치도록 재촉하란지분을 물엇다

傷害外科 內臟外科 金晟鎭外科醫院

淸血排毒強心特効藥 海草精 適應症 梅毒性病疾患、淋毒疾患、胎毒、心臟病、急性慢性ロイマチス、關節炎、神經痛、喘息、痰咳症、皮膚病、咽喉症、濃瘍症、腫物 一瓶(二個月分)三圓九十錢 京城府鍾路六丁目 ホルモン医化学研究所

美胚純

朝報案內 火夫 募求함 照會無用 社員招聘 第一生命保險相互會社 朝鮮支部長 白石一男 採用 男子事務員 商業學校卒業程度 三菱商事會社京城支店

合理的이오興味잇는김혼 펜字熟達法 편지紙를 당신은

어떠케하든지 中學卒業만은 꼭해야한다 事務餘暇에 學校가는十分之一의費用과 一個年의短時日에 獨學으로中學卒業을할수잇는 帝國中學會로

藥品 鑛山用藥品 工業材料 衛生器械 醫療器 處方調劑 醫藥品 名藥 京城府鍾路四丁目 山崎仁壽堂 電光化門二五六八番 振替京城八○八番

銀河水 고무신

世界 運動靴 世界護謨工業合資會社 社長 金元洙 專務 金景胤

京城 中等豫備專修學院

京城高等簿記學院(夜間)

首陽店 京城仁寺町七六

고무신은 거북선

東順德 絹綿布直輸入貿易商

鑛山經營法 朝鮮總督府技師 工學士 金聖浩 晴嵐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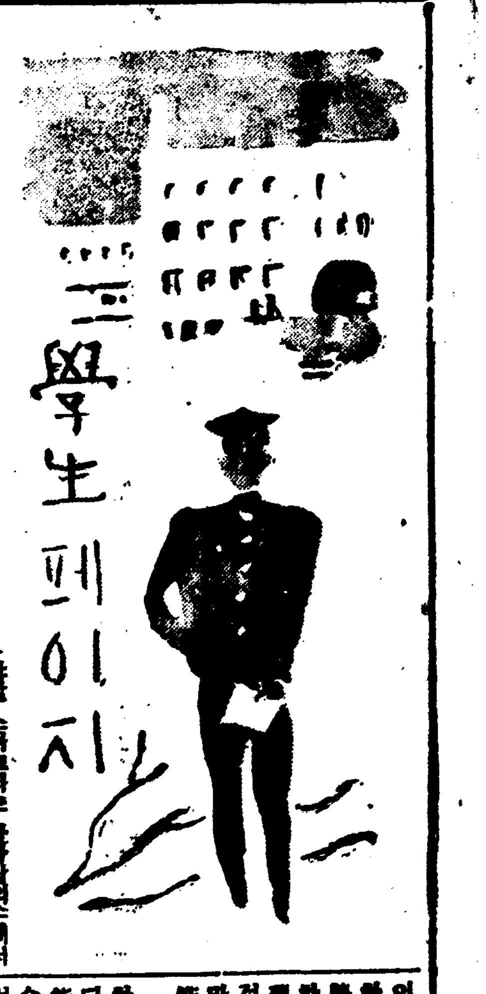
5月2日부터 3階 純綿白生地 純絹無地染 자로리投賣 2階 夏節用純綿 婦人兒童服地豊富入荷 1階 5月2日——7日 絹・毛靴下一割引提供 京城本町 ウオボカ

話은 下手라도 印象 仁丹

朝鮮唯一의少年雜誌! 少年 五月號發賣中 단十錢(送料一錢) 朝鮮日報社出版部發行

團成社 五月一日부터五日間 大每讀賣ニユース マキノトーキ時代劇 ころんぼ街 就職戰術

鄭尙好大人楊波公以老患累月呻吟不幸於今月二十九日午後八時十五分棄世玆以訃告 孫子 鄭



新詩

鄕愁

實川保育女校 金炳淑

연분홍빛 구름에 오늘도 흐려는
봄국 오월의하늘──
하염업이 슬슬한 이 마음。

내 홀로 섯내며 이룬는 어슥한델
어머니 그리워요。

질인간 모여 안저 메떡 먹든 그얏을
파─란 공간에 그리며
눈물 짓는 하향의손이여!。

「하이네」의 문을 아모리 두달여도
열리잔는 오늘──
어 時間에 무거운 못매!。

괴곤한 발거름을 가로수에 지대고
끈임업이 이 마음의窓口를 차즈오。

映畵팬

梨專 趙敬姬

教室에서 或은 寄宿舍 구석구석에서 우리는 밤낫 프레쉬맨으로 잇서서는 成績不良이다。한거름나가 俳優보다는 그映畵를 演出한監督에게 趣味를 갓게쯤돼야할것이다。

『애 明治座에 稚姬가와대』
『언제까진가?』
『이번 土曜日』
『主演은 로버트·테일러와 갈보래!』
『아아 머시다!』

이런 會話들이 汨濫한다。나는 이런 現象을볼때 또 내自身이 그속의 한사람임을 깨다를때、그리 유쾌하지는 못하다 이만흔 팬이 映畵에對한 아무런 自家의見解와 知識이업시潮水가티 漠然하게 몰려다니는것은 좀 딱하다생각된다。稚姬를 보러가는데 잇서서도 깔보의演技를 보러간다면 몰라도 今日의美男子요 人氣俳優라는 테일러君의 主演이라고해서 홍분하는것은 映畵錯의 프레쉬맨이다

『純白한處女地』를 監督한쥬리안듀비비에니까─그의『슈바리의流行兒』를 가봐야지』하며 監督을 따라 劇場으로 몰려가게쯤되면 그는 한 써퍼머─쯤될것이다。우리는 여기서도 오래 定住해선안된다。그 映畵自體를 構成하고 脚色한 씨나리오作家에의關心에까지 進出하지 안어서는 안될것이다。아직도 우리의 記憶이 새로운 피엘R월름主演 짜크페데─監督인『外人部隊』와『미모자館』또 그外에 시몬느·시몽이 主演한『綠園』또『女人의都市』『地平線』『우리의同志』가 다 싸알·스파크라는 한사람의손에서 脚色된것이라면 우리는 새로운 發見을 가지지 안흘수업다。同時에 그發見을 通해 싸알·스파크라는 씨나리오 作家를 아러야할것이다。짜크페데나 쥬리앙·듀비비에가튼 天才的監督이 오라이어─와 握手한데서 조흔 作品은 必然的으로 나와진다。나는 이런 歐米의現象을보고 생각나는것은 朝鮮에잇는 文學家들도 조흔씨나리오를 써서 監督과 가치 映畵를 맨들엇스면 조켓다고 생각이난다。이모든 監督뒤에 (OO) 두려운 脚色者의 功勇을 云云할만한 洗練된 팬이 되어야할것이어다。

『어느날밤생긴일』을 脚色한 리스킨이『오페라·햇』을 脚色하엿고『未完成交響樂』을 脚色한 라이쉬가『[illegible]』을 脚色하엿다는것을 알면 우리들은 映畵와 脚色者의 關係를 [illegible]하지 못할것이다。여기서 우리는 映畵의 [illegible]을 決定하는 [illegible]은 [illegible]에게만 잇다는 [illegible]만을 버리고 씨나리오의 [illegible]을 認識하여야한다。

映畵는 時間과 空間을 [illegible]하고도 우리의 [illegible]을 [illegible]시킨다。그러고 文學에잇서서 不可能하다할수잇는 時代를 反[illegible]할수잇는것이 映畵技術의 特[illegible]것이다。그러고 文學作品을 [illegible]色해서 映畵作品을 맨드는일이 만흐니만큼 文學과 映畵는 떠날수업는 關係다。그러타고해서 우리는 文學作品을 읽어나서 偉大한 文學作品을 읽어나 映畵로 나오면 原作만은 못하다는 [illegible]나가緣안고 구경을갓다하자。가령『罪와罰』을 原作으로 읽고 괴ー테ー트·슈나ー트가 映畵化한『罪와罰』을보앗슬때 그는 映畵에對한 不滿이 업지못할것이다。多方面으로 含蓄性이만흔原作을 꼭 가리켜볼수는 업는것이다。그러니까 映畵를 보려면 어느程度까지 原作을 無視해야한다。原作이 조앗지만 脚色을 잘못해서 映畵가 原作만 못한때도잇고 原作보다 映畵가 優秀한때도 勿論잇다。그리고 映畵는 脚色에 [illegible]어 도아나니까 [illegible]키의『春下書』을 映畵化함에잇서 原作하고는 떠다른다。그러치 映畵는 어데까지든지 映畵다。우리들이 文學은 文學으로써 [illegible]할수잇고、映畵는 映畵로써 [illegible]할수잇서야지 原作과가티 映畵化하지안헛다고映畵를 나므래서는 映畵팬될 [illegible]格이업다 [illegible]의『春下書』을 [illegible]에서 [illegible]의『[illegible]下書』으로 表現할수도 잇는것이다。한映畵作品에잇서서 人物과 人物의配置 [illegible]와會話 小道具를 옴즈기는 方法에따라 映畵에對한 興味도달러진다。

現代와가티 多作多事한때에사는 우리는 [illegible]해야만 할 文學作品을 [illegible]時間或은 한時間우동안에 스크린을通해서 볼수잇다。여기서 映畵의大衆性이 文學의大衆性을 侵犯하는듯하나 文學의大衆性에 [illegible]는업다。映畵에서 增設된다고 冊店이 亡해업서지지는 안는다。그리케 文學은 文學으로써의大衆性이잇고 映畵는 映畵自體로써의 大衆性이 엇는것이다。映畵와文學은 本質的으로 다른점을 가지면서도 떠날수업는 사이다。더욱이 씨나리오가 한文學的作品行勢를 하는점이다。朝鮮에도 映畵小說이라고해서 發表된것을 新聞紙를 通해 볼수잇고 海外에서는 벌써부터 어씨나리오文[illegible]에 [illegible]것을 볼수잇다。

그러고 우리는 映畵가 [illegible]化되어간다는것을 아러야한다。[illegible]映畵와 米國映畵의 一般的差異는 어데에 잇다고 생각한다。[illegible]에서는 一年에 作品하나를 [illegible]作할지언정 [illegible]을 [illegible]려고 [illegible]的으로 애쓰는[illegible]向이 보이고、米國서는 철저히 [illegible]的으로 [illegible]해서 [illegible]行物을 맨드는데 치우치는것갓다。그러타고 米國映畵가 다[illegible]行物이라는것은 아니다。米國에도 [illegible]이잇는 映畵를 [illegible] 만들기는한다。

[illegible] 흑우마다가 보는대로도 [illegible]나 [illegible]으로 映畵를 [illegible]한다면 [illegible]와 스크린앞에는 다를 [illegible]은 엇는것이 조타。왜그러 무리를 지어 몰려다니기를조아하는지 몰으겟다。映畵를 엔죠이하는데 [illegible]리지 말고 스크린에서 生活의 [illegible]을차즈고 또 아름다운 [illegible]을 感[illegible]하자。

學生作品募集

全朝鮮男女學生諸君! 諸君이 家庭에서 學園에서 날로 배홈에힘써 게을리하지안는것은 諸君의 가장 질거운 義務인同時에 또한 그努力의 結果가 우리文化建設의 가장 굿건한 礎石이될것이라는것을 생각하면 실로 우리의 前途는 크다고하지아니할수업는것이어다。그럼으로 이러한 神聖한 職責을 가진 諸君이 그學問의 精工과 研鑽에 多少의 도움이라도된다면 우리는 무엇이라도 諸君에게 提供하기를아끼지안는것이다。

그래서 本社에서는 이번에 다른紙面을 割愛하고 特히 學生諸君을 爲해서 每週日曜日마다 오직히 한面을 밧치기로하엿스니 어야말로 諸君의 獨擅場이라 家庭에서 學園에서 배우는 學問과 知識을 가장 自由롭게 活用할 機會를 다투어가지기를 바라는바이다。

募集規定

應募資格 全朝鮮男女中等學校以上專門大學生

募集原稿 研究論文、實驗報告、隨筆、紀行、書翰、콩트(以上四百字原稿紙五枚內外) 新詩、時調、漫畵、學園消息(以上長短隨意)

賞品 每一人一回分에 對하야 揭載되는대로 薄謝를進呈함

其他注意 原稿末尾에 반드시 所屬學校名과 氏名을 明記하되 匿名은 無効로함 無常時로 어느때든지 投稿해도無妨함

朝鮮日報社學藝部

隨筆

포풀라、로ー드

延專 崔永日

아침은 언제나 새롭다。

서울의 아침도 그럴것이다。그러나 새벽마다 고동은 너무나일직이 하품을 뿜는탓일가。빼울들고 문밧글나설때는 거리는한용 뒤설거질가튼 수라장이다。생생한채로 잇서야할 여친의재롱은 감쪽이 어느결에 솔칙화한듯 흐미하여젓고 마저닷기우지도안흔 鋪道우에는 벌서수만흔 발자국들이 얼룩지운다。어것이 하로의 醜態를 나타내려는 거리의化粧일지도 모르지만 정거장은 언제나 수만흔 衆庶의 送迎者들이 모여든다。

그냥 두손을마쥐고、봉투차지가도 조흔것을 衆庶의 꾸러미꾸러미를 동여들고 싶분 구분팔분 바작바작 속을태며 시간을 적어보긴다。

새벽의서울을 영영 떠나버리는차가아니련만 마드리드를 출발하려는 최초急행차보다 못지안케 웅성거리고 행렬이 어지롭다。

서울정거장의 씩날을 밟고 넘어 삼천칠백米突 타블이 살도한 옥어진숲과 하이얀 비들기장들이 새롯이 깃드린 골작어를지나서 포풀라 로ー드는보인다。

山脈는 식물정치럼 포풀라로ー드는 언제나 고요하다。칠흔 개절의 탈볼버지못한 잔해들이 섯휑휑 이곳은 소나무의年輪이 녹아흐르는 푸른돈호흡이 그욱하다。

[illegible]으로 가는길이아니요 섬몹피로 구버도는 도랑길이 아니지만 어곳은언제나 경쾌스러운 회파람을 날릴수잇는곳이다。

약속업는 문둘레와 매화꼿치간간히 보이기는하나 스카트쯧만은언제나귀한 포풀라로ー드。앵화가피고 도랑속의새들이 지저귀는 번거로운것보다 자타리이길이 조하진것은 고즈나한 기후의감촉에 반한탓일가。

이길로 거닐거를 즐기는마음이면서도 웨조아진곳인지 나는 그영문을 모른다。알고시픈憧憬의목마른질을 넘기면서라도 모르는채 그냥거니는것이 더깨끗할듯하다。

자대를 보아서는 봉은담섬과 기여오르는 아이비 반사되는 유리창이 군데군데 보일듯시프나 한오리 멜로디와 줄립도업다。꼿꾀지안는 둘에도 나비는 날러오든 범이 연출가。

저리한 午後의 講義가 끗나자 시언스리 포풀라로ー드를 거닐든나는 바람에 옷겨오는 종이조각을 무심코 주서들엇다。

한흐릿바탕으로 보아서는 充지도아니고 찌저버린 노트장도 아닌 깨끗한조각이다。종이를펼처기도전에 새로운흥분을 보려는듯야릇한호기심이 압흘선다。

혼자섯기는 너무쑥스러워 애매한 진달래만 따버렷지요。

약속한시간을 모리스에게 무러보세요。 ──아리사。

도바도밧흔 글자가 아니지만 글씨라든지 알은女人의 筆跡이다。

읽고 또읽고 면번을 속으로 되푸리하야보앗스나 신롱스러운듯이 통하지 안는다。종이 안팍글살펴지만 보낸곳、밧는곳이 하늘비치고 단두줄이 사연의 전부다。

모리스는 대체 누굴가?

향용 드러오든 여르가든면서도 생각이 수월히 돌지안는다。너네임일가 그러치안흐면 학교에관계된 서양사람이인가。

혼자서서 애매한 진달래를뜻다니。대견스럽지안흔 한조각을 주서들고 나는한참이나 생각을 거듭하엿다 대영밥물관의 묵은원고를뒤지며『에밀리쁘론테』를 연구한든『버지니아·무어』보다 못지안케 추상의추상을 청울리면서。

편은 아리사라는 어느까지 쓴것을 보아서는 知性의 자부심이 적지안흔 女人일것이다。

나는 여기서 직각적으로 제롱을 연상치 안흘수업다 그리면 이것이 제롱에게 오랜지? 女人들이 향용 대상에게 그려보내는 사랑의販賣속에서 흔리물시를 보인다는것은 보기드도문인데? 더욱어 단두출의사연을。

그럴것이다。약속한 시간을암두고 보다야바른 감상적인女人이 먼저대상을 기다릴것은 물론이다。정열이 버친 홍분이가슴을 호수물처럼 담어두고 외로히섯기에는 어려가우면서도쑥스러운 얼이여서 피여나기시작한 진달래를 공연히 뜻고 씹어보는 초조스러운순간 대상의면윤간는저진 약속위반을 용서할여넘도이시 분후리의 글자를 되는대로 쪄노코 앵도라저갓슬 아리사의 뒤人모양이──두줄에 표현된것이 아닐가。

이 가지고잇는 시게를 잘알고잇기때문에 저니고다니는 모리스에게서 약속한시간을 아러채리라는 가벼운 조롱의말시까지 쓴것이 아닐가。

다음날 제롱은 가슴에뭉처두엇든 어떠이야기보담도 먼저야리사에게 머리를숙엿슬것이다。

솔모업는 紙片이어니타 서절의푸른꿈을 씹물하는 한마리나비다 허공을 날리온 나비의뒷걸음 차즈리 어지만 아친에갑작스리 퍼분 소내기를 피하려고 다름질하든 非紳士의 포켓에서가 아니라면 車시간을 곱허쪼차가든 제복군中 어는패스에서 失足되엿슬것이다。

부드러운 바람에 회파람을실고 창공으로 부서저간다。

앙상히 뼈만남엇든 白楊木회초리 끄테도 벼아리처럼 야룰야롤한 푸른조름이 도다난다。스카트 쯧이 귀하고 한술기벗꼿나무조차 업는 소박한 포풀라로ー드에도 봉도듬이엿스니까。

本報 當選作家短篇리레ー

愛憎道 (五)

鄭飛石 作
崔根培 畵

더구나 사내가 노선달이엿다고 고처생각하니 홍매가 가엽서면 꼴론 생은몰듯처럼 녹아내린다。

『참 배아프긴 좀 나우?』

한참 몰두굴두업어 언젓다가톡보는 봉쪽 퉁명스럽게 못는다

『쉬 날병언가요머』
『병원엘 거뵈지!』
『그까진데 가 뭐해요 맨돈 만업세구』
『그래두 가뵈우!몸이 성하구야 돈이디』

홍매는 고개를 수그린다。잠시잠잠하다。

『널 가뵈우!돈 엇거든 하옐원 쵀다주지』
『아니 돈은 잇서요』

홍매는 아까 노선달께서 바든 돈을 아직허리춤에 넌채로엇것을 깨닷는다。

『제생병원이 젤 낫다는데 그라 가보우』
『글세요』

아닌게 아니라 배가 또 쌀쌀아퍼온다。

득보가 가자 깐놈을 끼고누엇스나 좀체 잠이 오지안는다 득보 생각이 새삼스럽다。

허긴 눈에얼씬거리는건 득보만도아니다。

최종섭──날씬한 교복에 헌출배이 교모를 꾹 눌러쓴 종섭……그는 지금쯤 무엇어 됏슬까 서방도 모습이 눈에 선하다。

요모조모 뜨더보면 깐놈의눈코、귀 모두 종섭을 안닮은데가 업다。

(종섭도 서방 우리를 생각해보는적이 잇슬까?)

허나 깐놈이가 잇는줄도 모를테니 홍매는 혼자 속어 썩는다。

『데려가지는 말구라도 면저에나 너주면──민적에는 안너드라도 제아들이라걸 알어나주면──그도 못할바이면 서로 맛나보기만이라도 한다면……………』

이것에 만약 학교에가면 동무들한테 애비업는 애라고 우입을 바드리라하니 잠든 깐놈의나출 드려다볼수록 불상타。

밤은 지옥맛치럼 거펴가는데잠은 철리로 도망처버렷다。

홍매는 따러나는 깐놈의 긱기수로 떼두고온 생각이나 얼른문깨로 가본다。

『엄마나 여거 와시요。』

어널세나、깐놈은 문미레서손가락을 염에물고 계면쩍어 한다。

『왜 왓니?』

홍매는 주먹을 빼며며 울꿈질을 해본다。

『홍 내래 와 접에 함자 엿술래던』

홍매는 유리문을 열엇다。깐놈은 문틀로 계여오른다。

『애 여기 드러오믄 의원여 불칼 쟨단다。얼머 곳 나가깨게서 놀아란』

하니까 깐놈은 술며서 문틀에서 물려나 조갑자가른 손바닥을 내밀며

『옹야!』

사탕사먹게한입달라는것이다。

홍매는 돈가방에서 고작 새돈전을 한입골러 별린손바닥에 떠러드려주다。

깐놈은 실물 우스며 재법 어른쩌게

『나 여기서 사탕먹으면서 놀꺼니 엄마 벙뻐구 나오라우 질어 함께 가자우』

세다리께를 어어 구멍가게로 다러나는 깐놈의 뒷모습을 멍거니 바라보고섯는데

『차홍매요!』

홍매는 깜작 놀라 두근거리는 가슴을안은채 급사애따라 사무연과 전형졸로 사라진다。

뱅여돌차 도야래져 무쭐해온다。

『一金三千錢也』를주고 제창권종제를 바더들자 홍매는 봉연도제자 벼연어 연든것을 긋세게재닷는다。여길사헤 그런지 다리도 맬리는것갓다。

홍매는 대합실로 드러간다。

면저와거대리는 사람어 툽식이나엇다。모두 얼굴비치 놉어코빼져 앵상드러나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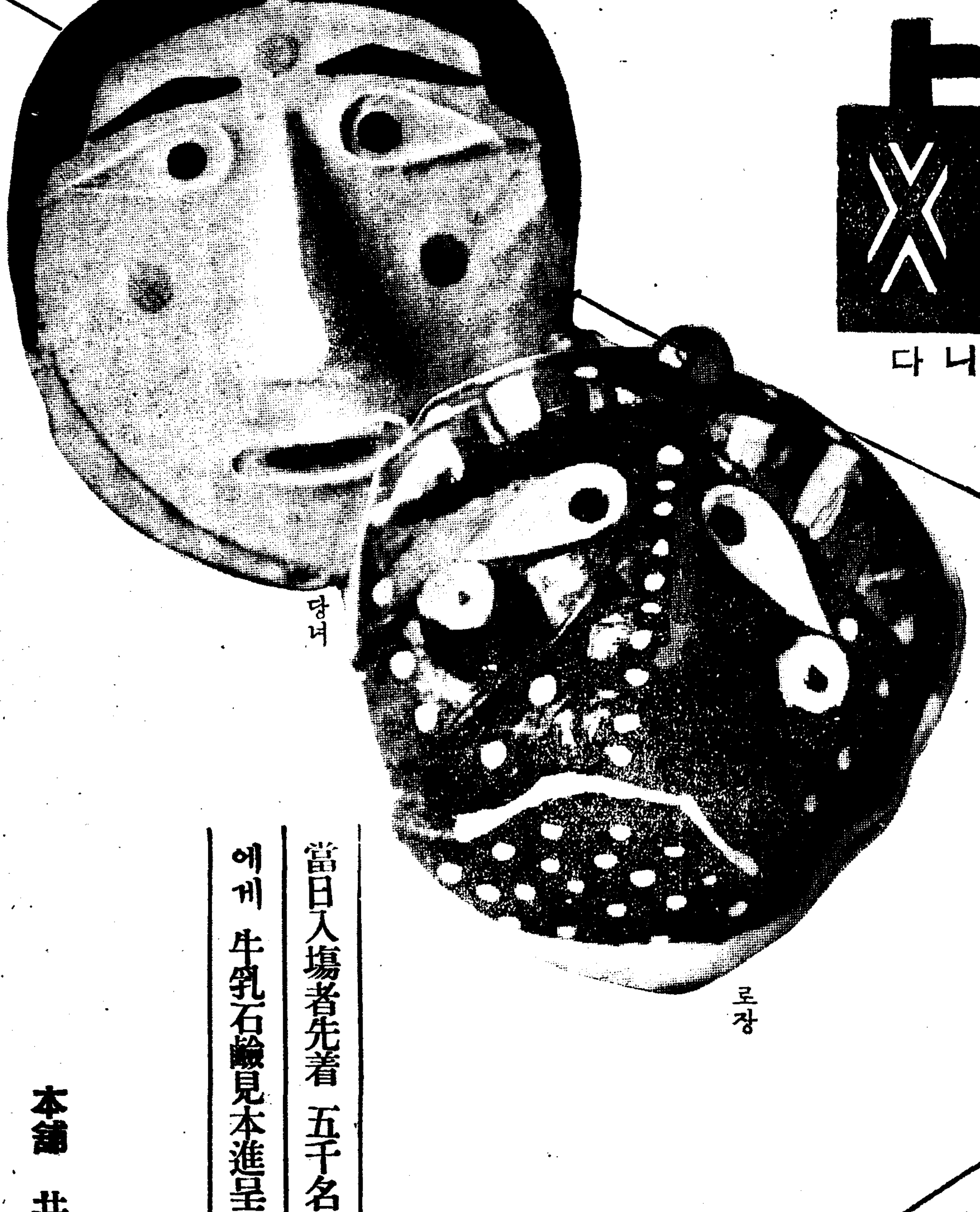
홍매는 내얼굴도 저렇까시퍼맵어어퍼다。무둑 고개를 도니육켜문을빠게 새깜한 머리가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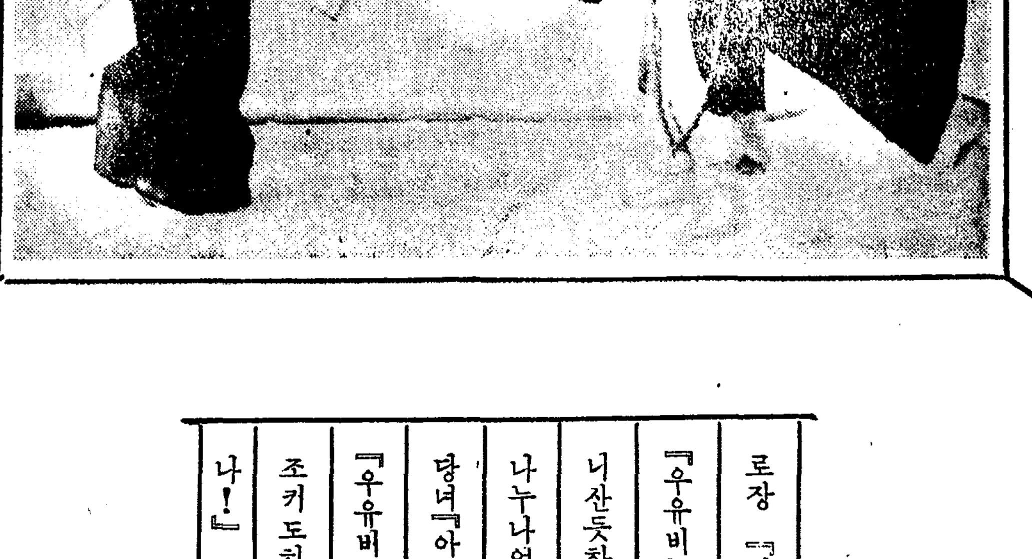
(깐놈이가……?)

어떤물에도조흔

牛乳石鹼

二倍以上의거품이이러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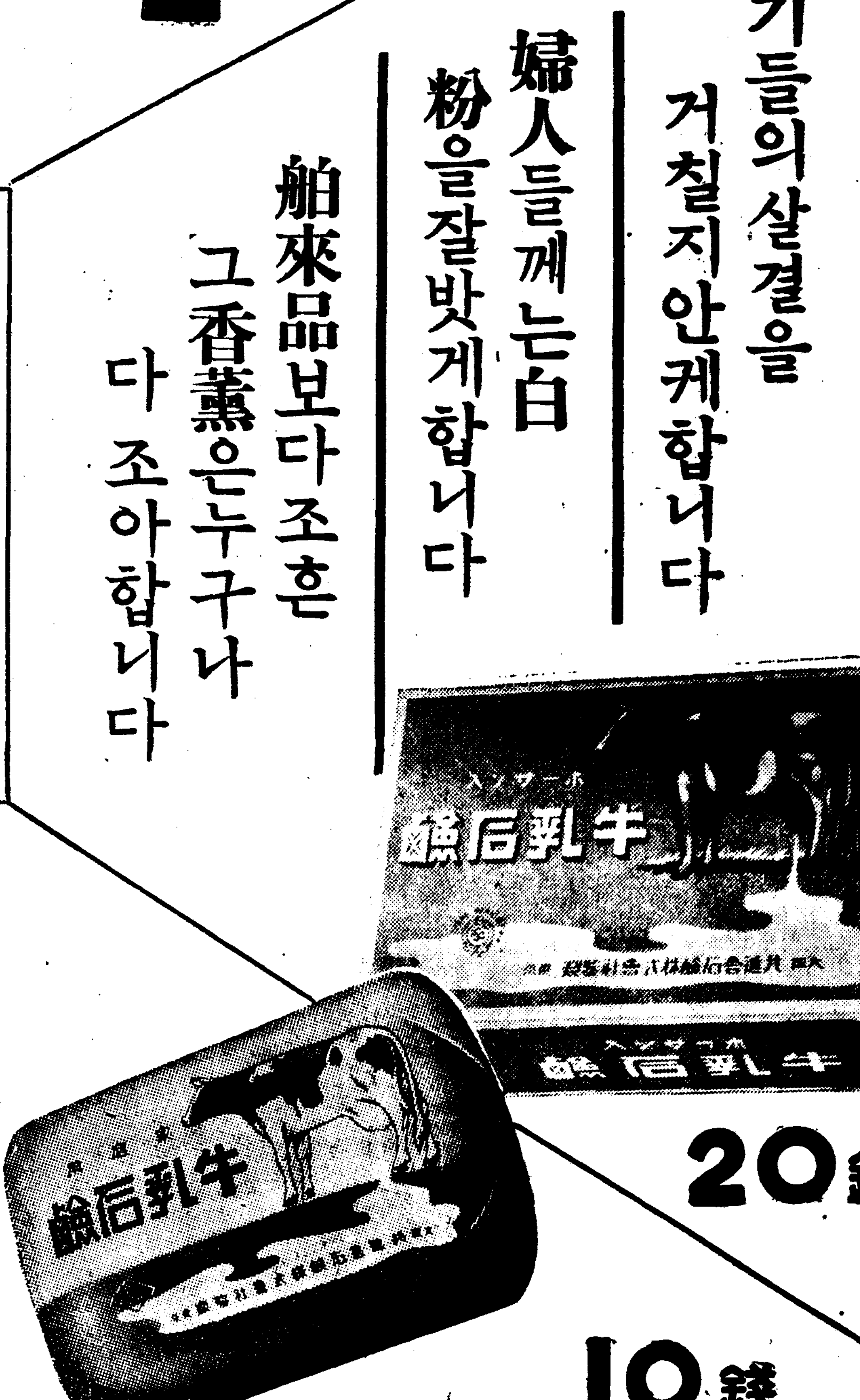

당녀
로장



애기들의살결을
거칠지안케합니다

婦人들께는白粉을잘밧게합니다

舶來品보다조흔
그香薰은누구나
다조아합니다



20錢

10錢

로장『얼시구조타! 오날은 『우유비누』로 목욕을하고왓드니 산뜻한香氣에 역개춤여절노 나누나얼시구조타!』

당녀『아이남우슨냄새가햇드니 『우유비누』냄새로구먼 그냄새 조키도하다 엉덩춤여절노나누나!』

鄕土演藝大會 祝 華新五週年

當日入場者先着 五千名
에게 牛乳石鹼見本進呈

本舖 共進舍石鹼株式會社 東京 大阪